

5월 29일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는 1791년 신해박해부터 1888년 병인박해 때까지 순교한 이们이다. 한국의 첫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는 1759년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학문에 정진하였고 1783년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 무렵 천주교 신앙을 알고 교리를 공부하여 세례를 받은 그는 조상 제사 문제로 체포되어 천주교 신앙을 버리도록 권유받았으나,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다며 신앙을 고백하다가, 1791년 12월 8일 순교하였다. 다른 동료 123위도 모두 이렇게 신앙을 수호하다가 순교하였다. 이들은 2014년 8월 16일에 시복되었다.

순교자 공통: 여러 순교자, 1721.

마침 기도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복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몸과 마음을 다해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